

강진·순천의료원 수십억 당기 순이익

전남도,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지난해 결산 분석 코로나19 상황서 전담병원 지정 돼 국비 등 지원 영향 전남테크노파크 29억·바이오산업진흥원 41억 순손실

한때 적자 누적으로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던 강진의료원이 지난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을 냈다. 순천의료원도 전년보다 20배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려 '공공의료기관의 백조'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국비 등을 지원받은 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남테크노파크·바이오산업진흥원·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전년보다 당기 순손실 규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기관의 존재 이유가 영업 활동을 통해 기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합리적 경영을 위한 관심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들을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29억 25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테크노파크가 지난 2020년 23억 84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가 줄기는 커녕, 22.7% 늘

어났다.

테크노파크측은 기업들을 위해 제공하는 수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장비의 감가상각 등이 손실에 반영되다보니 손실 규모가 커 보였다는 입장지만 수치대로라면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산업진흥원도 2020년 38억 8700만원 손실에서 지난해 41억 1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2020년 1억 5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던 중소기업진흥원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4억 63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녹색에너지연구원도 지난해 5억 3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2020년(당기순손실 4억 4100만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영 실적이 개선된 곳도 있었다. 코로나 19 대응 전담기관인 강진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46억 1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0년 7억 4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던 것과 달리 흑자 전환한 것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운영자금 등을 국비로 지원 받고 입원환자들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담병원의 경우 정부의 격리병상 지정에 따라 코로나 전에 비해 3배 가량의 손실 보상을 지원받았다.

병상이용률도 48.5%(2020년) 수준에서 79.8%(2021년)로 크게 늘었고 100병상당 입원 수익도 27억 7700만원(2020년)에서 45억 6200만원(2021년)으로 급증했다.

순천의료원의 경영 실적도 호전됐다. 2020년 당기순이익(3억 8700만원)의 20배에 가까운 63억 5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들 병원은 한 때 임직원 비리, 방만·부실 운영 사실이 드러나는데, 적자 누적 등이 맞물리면서 폐원 요구까지 받기도 했지만 코로나 시대 속 공공병원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며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2020년(당기순이익 559억원)에 비해 2021년 당기순이익(391억)이 줄었지만 부채는 654억 감소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공기업 2021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0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56조 3000억원으로 전년(54조 4000억원) 대비 1조 9000억원(3.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33.8%로 전년(34.9%) 대비 1.1%포인트 낮아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0일 광주 동구 AI 창업캠프에서 임차식 인공지능융합사업단장(왼쪽)과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 2XL 연구소장이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나선다

시·인공지능융합사업단-KT,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광주시와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민간기업과 함께 유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 광주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인공지능융합사업단과 KT는 10일 광주 동구 AI창업캠프에서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육성 지원을 목표로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날 AI창업캠프 입주기업들과 AI 창업 전문가 매칭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임차식 인공지능융합사업단장과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광주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광주가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KT와 AI 스타트업의 ▲개방형 AI 생태계 조성 ▲AI 기술 연구개발 ▲AI 중심의 상호 기술 교류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특히 광주지역 AI 스타트업이 KT의 AI 기술 플랫폼 '지니랩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T와 AI 스타트업간의 기술 협력을 비롯한 공동

프로젝트, 전략 투자, POC (기술 검증) 연구협업 등을 통한 개방형 AI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으로 대기업과 유망 있는 AI 스타트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우수 AI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식 인공지능융합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KT와 AI 스타트업 간 AI 기술을 공유하고, 기술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략적 동반 성장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발굴과 각종 지원을 통해 광주 AI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T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AI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와 함께 광주 첨단3지구(4만7246㎡)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119억원을 투입해 AI 융합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각종 인프라·기업·인재·기술 등을 집약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자치구, 집중호우 대응 체계 긴급 점검

광주시와 자치구가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거울삼아 재난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10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상 상황 파악, 선제적 비상 체계 가동, 재해 우려 지역 예찰, 둔치 주차장·하천 도로·지하차도 통제 안내 등 현장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무원들은 이날 말까지 인명 피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3~5월 사천 대비, 장마철 민관 합동 점검에 이어 지점별 위험도 등 상황을 거듭 파악한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방재 기상지원관을 파견 받고 자연 재난 메뉴얼을 공동 제작하는 등 기상청과 협력도 강화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긴밀한 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침수 우려도로, 지하 차도나 산사태 위험지역 통제가 있으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하철 흥겨운 예술무대 10일 광주 서구 농성 지하철역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매주 수요일 농성역과 상무역, 금남로4구역 3곳에서 이같은 공연행사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도 의병' 유물 공개 구입...2025년 개관 '역사박물관' 전시

전남도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구입 대상은 1555년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의병 관련 유물이나 자료다. 의병의 문집이나 편지, 사진을 비롯해 무기류, 의복, 생활용품 등 모든 의병 관련 유물이다.

매도 신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유물은 구입선별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한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공개구입 및 기증·기탁을 통해 2113점의 의병 관련 유물을 수집했다. 보존

처리와 번역 및 연구를 거쳐 2025년 6월 개관 예정인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 전시해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위기 때마다 국력에 앞장섰던 남도 의병의 충혼을 기리고 전남도민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나주 공산면 일원 36만㎡ 부지에 전시실, 추모시설, 역사숲,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